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미지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f Image's Function and Utilization for Visual Communication

정경열

영산대학교 방송콘텐츠학과

Gyoung-Youl Jeong(imager@ysu.ac.kr)

요약

본 논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LTP(Literacy Through Photography)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에 대해 연구한 결과다. 현재는 디지털 영상 시대를 맞아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 텍스트 위주의 교육이 다수인 건 사실이다. 이에 이미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조한 LTP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교육결과를 소개한다.

그리고 교육참여 청소년들의 LTP 작품분석과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를 실시한다. 청소년들의 창작 이미지는 바르트(Barthes)의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 관계를 세 분류로 정의한 정박, 중계, 삽화를 기준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는 LTP 교육전후 실시한 영상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로 이뤄졌다.

그 결과 LTP 교육에서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성취가 높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와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반영되는 것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LTP 작품과 설문조사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창의성 제고를 위한 이미지 활용교육에 의미를 부여하고 LTP를 새로운 교육으로 제시한다.

■ 중심어 : | LTP | 사진활용교육 | 기호학 | 바르트 | 이미지 | 커뮤니케이션 | 사진교육 | 창의성 | 영상교육 |

Abstract

This thesis is a result of studying the combination of text and image based on the achievement of LTP (Literacy Through Photography), a communication education program for young people. This paper presents the LTP program that emphasizes communication functions of images and introduces the results of education conducted to improve the ability of visual communication for adolescents. Adolescents's creative images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ree categories of anchors, ealais and illustrations. The questionnaire was a quantitative survey of communication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LTP training. As a result, LTP education showed higher achievement in communication with adolescents when using images than text. In conclusion, this study gives meaning to image utilization education for creativity enhancement and present it as a new education by examining the LTP works and questionnaires of adolescents from communication point of LTP.

■ keyword : | LTP | Image | Education | Communication | Creativity | Barthes |

* 이 연구는 2017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06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9월 15일

수정일자 : 2017년 08월 31일

교신저자 : 정경열, e-mail : imager@ysu.ac.kr

I. 서론

인간은 의사소통한다.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을 위해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기관을 동원한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며 그것을 통해 상호 이해하는 행위가 커뮤니케이션이다[1].

이런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감각기관의 연장이다 [2]. 감각기관은 사물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눈은 중요한 감각기관이다. 눈을 통한 시각 커뮤니케이션은 텍스트(언어, 문자)와 이미지(그림, 사진 등) 등의 시각 코드로 가능하다.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시각코드는 동시대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통합적 변화와 창의적 발전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엔 디지털 영상시대를 맞아 이미지가 사고영역에서 텍스트 이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화와 TV 그리고 최근 SNS에서 이미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창의적으로 수행한다. ‘유튜브’ 개인방송이나 ‘페이스북’ 영상중계 등이 좋은 예증이다.

조지 미드[3]는 “언어의 영역에서도 사물과 단어를 중재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상 이미지다. 단어와 사물의 연합 원리는 크게 보아 영상의 습관형성 원리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교육도 이를 반영하여 글쓰기에 사진이나 영상을 결합한 형태의 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결합 자체에만 그쳐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살린 교육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바르트의 기호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에서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 연구하려한다. 인지과학이나 심리학 등 여타 학문에서도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본 연구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미지가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연구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한 교육인 LTP를 제시하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리

고 이 교육에서 청소년들이 창조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기호학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교육전후 실시한 설문조사의 의미를 고찰하겠다.

이어 청소년과 교사 그리고 영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및 인터뷰를 실시하는 질적조사도 병행하려 한다. 본 논문은 하나의 교육프로그램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창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교육 연구의 한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바르트의 정박과 중계 그리고 삽화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있어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프랑스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4]의 이론을 배경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바르트의 연구는 이미지 자체의 기호학적 분석과 기능적 활용에 대해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연구가 양자간의 통합적 관계 속에서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우수성과 필요성 증명에 연구 목적이 있으므로 바르트의 이미지 중심의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적합성을 가진다. 바르트[5]가 “책이 출현한 뒤 텍스트와 이미지와의 관계는 혼란 것이 되었지만 구조적 관점에서 이 관계가 연구된 사례는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것도 연구의 또 하나 출발점이다.

그에 따르면 이미지는 ‘약호 없는 메시지’다. 이미지는 사물의 형태를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특별히 약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이미지의 재현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도움이 없다고 해서 이미지 자체가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르트[5]는 “모든 이미지는 의미들의 ‘고정되지 않은 연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하고 고정시키려면 텍스트와 공존이 필요하다. 여기서 바르트는 새로운 이미지의 문명 속에서 전통적 매체인 텍스트의 역할을 재규정하며[6] 이미지와 관계 맺는 언어적 기능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정박이다. 바르트[4]는 “텍스트는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 중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게 한다”라고 정박(碇泊 : Anchorage)의 기능을 설명한다. 이 때 이미지의 자유로운 기의는 텍스트의 강제적 지시에 의해 해독되도록 유도된다. 이는 이미지의 다의적 비결정성에 기인하는데 사진의 해석적 제목, 광고의 헤드라인 등이 정박의 대표적인 경우다.

둘째는 중계다. 바르트[4]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적 관계인 중계(中繼 : Relais)에 대해 “텍스트와 이미지는 어떤 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미지와 단어로 구성된 메시지의 통합은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된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영화는 대사라는 어휘적인 면과 연기라는 시각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어 텍스트와 이미지가 상호의존적인 중계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텍스트에 절대적 역할이 부여된 정박, 텍스트와 이미지에 등가적 중요성을 둔 중계에 이어 마지막으로 삽화(插畫 : Illustration)는 오히려 이미지에 방점을 둔다. 바르트[7]는 “예전에는 이미지가 텍스트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었으나 오늘날에는 텍스트가 이미지를 무겁게 만들며 이미지에 도덕, 문화, 상상력을 부담 지운다.

예전에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축소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미지에서 텍스트로의 확대가 있다”고 말했다. 언어 중심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인 삽화는 한 메시지 속에서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지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정박과 중계 그리고 삽화에서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롤랑 바르트의 정박, 중계, 삽화의 언어와 이미지 관계 [8]

정박	중계	삽화
언어 > 이미지	언어=이미지	언어 < 이미지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화자 혹은 작가가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청자 혹은 감상자에게 이해와 해독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다

[9] 이상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에 대한 바르트의 기호학적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인 이미지와 텍스트의 활용에 대한 상호 효율성과 적절성을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 LTP와 사례 탐색

본 논문은 청소년들을 위한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일례인 LTP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LTP는 ‘Literacy Through Photography’의 약자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활용한 청소년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카메라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사진과 영상 등 이미지로 표출하고 여기에 자신의 글(텍스트)을 씌으로써 자아와 외부세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해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골자다.

미국 듀크대학교 다큐멘터리 연구소(The Center for the Documentary Studies)의 사진가이자 교육자인 웬디 이월드(Wendy Ewald)가 1989년 노스캐롤라이나 공립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해 창의적 표현력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한 것이 시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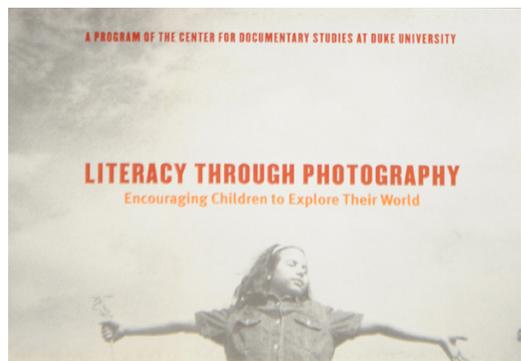


사진 1. Literacy Through Photography 안내 자료

LTP가 추구하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상언어와 문자언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10]. 이월드[11]는 “LTP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으로 최종적으로 영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론이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미지와 텍스트로 어떤 커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그때 이미지와 텍스트는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느냐?'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나선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실시된 여러 LTP 교육 중에서도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LTP캠프'를 사례로 삼았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면적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이다.

'LTP 캠프'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케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양한 예술체험 창작활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소통) 증진을 목표로 했다. 지역은 충북 청주시, 경기 광명시, 광주시, 경기 파주시 등 4개소로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총 1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3. 연구방법

3.1 LTP 이미지와 텍스트 분석

첫 째로 적용할 연구방법은 청소년들의 창작 이미지와 텍스트 분석이다. LTP를 통한 청소년들의 작품을 기호학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바르트의 정박, 중계 그리고 삽화의 개념을 활용한다. 텍스트 위주의 교육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이들이 표출한 메시지와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연구하고 LTP의 교육성과와 정책적 제언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교육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수많은 작품에서 본 연구가 정박, 중계, 삽화로 분류하고 예시하는 작품들은 대체로 교육이 진행되어가는 시간순대로 창작된 작품들이다. 교육 초기에는 정박, 중기에는 중계, 말기에는 삽화에 해당되는 작품이 많이 창작됐는데 이와 같은 순서는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본 연구에 차용됐다.

3.2 설문조사

LTP의 연구 분석을 위한 두 번째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다. 설문조사는 LTP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 120명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를 지수화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됐다. 설문은 교육전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뤄졌다.

구체적 개발 과정으로 먼저 이론적 문헌고찰을 통해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과 제반요소 등을 종합했다. 다음 전문가와 함께 개발팀을 구성해 교육 효과를 구성하는 개념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문항을 개발했다. 문항은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와 '이미지 표현력' 그리고 '자기 표현과 피드백 향상도'를 측정하려 총 8개로 구성했다. 설문작성은 본 연구자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심재용 교수가 했다.

설문조사의 분석을 위해 SPSS 14.0프로그램을 활용했다. 'LTP 캠프'가 청소년의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방식으로 'Scheffe' 방식의 변량분석(Anova)방식이 사용됐다. 측정방법은 리커트(Likert)¹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각 측정 요인들은 동질적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변수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크론바흐의 알파계수를 계산했다. 2개 이상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 변인들은 신뢰도 검증을 통해 합산평균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신뢰도 값은 알파계수 0.60이상을 채택해 .696이라는 값을 얻었다.

첫째 조사내용은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다. LTP의 본질적인 교육 목표가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향상이기 때문에 설문은 세 문항을 이 부분 측정에 할애했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설명한 앞선 바르트의 세 가지 유형은 이미지의 활용도가 분류의 기준이 되므로 설문조사를 통한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효과 측정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미지 표현력'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설문들은 LTP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텍스트보다 영상과 그래픽 등 여타 이미지로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앞선 바르트의 경우 '삽화'에 해당

1. 1930년대 Resis Likert에 의해 개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생각, 지각, 감정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의 한 유형./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되는 사례가 ‘이미지 표현력’이 향상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바르트의 연구의 적용은 이 같은 이유다.

세 번째는 ‘자기 표현력과 공동체 이해’다. LTP 교육의 최종목표가 표현과 소통 그리고 공유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지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표현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려 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교육효과를 몇몇 질문으로 지수화 한다는 것은 우선 측정가능 여부가 의문이며 설문을 통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계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부족한 연구방법으로라도 측정 자체를 시도하는 것이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근거와 실효성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설계된 질문과 측정항목의 관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문항과 측정 항목과의 관계

측정항목	설문내용	단계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효과	사진과 영상 찍기에 관심있고 좋아한다	1~5
	사진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1~5
	사진 영상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1~5
이미지 표현력	같은 메시지를 사진, 동영상, 그림, 목소리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1~5
	영상은 글과 친구 같은 사이이다.	1~5
자기표현과 공동체 이해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잘한다	1~5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이야기도 잘 듣는다.	1~5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1~5

3.3 질적조사

앞선 영상분석과 설문조사와 함께 청소년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영상기록과 같은 질적 분석도 교육기간과 종료 후 병행했다. 청소년들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피교육자로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전국 4개 교육장별로 나뉜 교사들은 월 일회 자리를 같이해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교육운영일지, 강의록, 영상기록 등의 교육정보를 공유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LTP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심층면담 및 인터뷰를 실시

했다. LTP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직 고등학교 영상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미디어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등 영상교육 전문가들을 상대로 인터뷰 및 이메일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상교육의 실질적 문제와 제안사항에 대한 논의도 전개했다.

III. 연구결과

1. LTP 이미지와 텍스트 분석결과

1.1 정박(碇泊 : Anchor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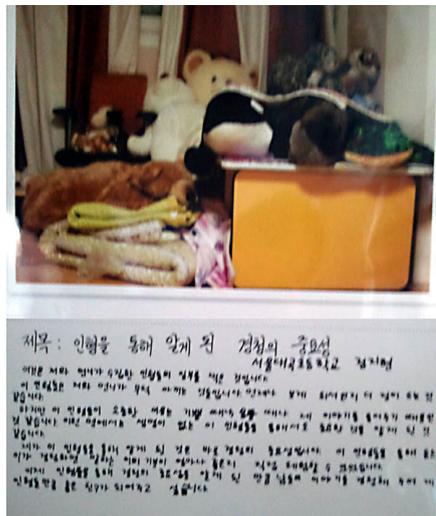


사진 2. 인형을 통해 알게 된 경청의 중요성

제가 이 인형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바로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이 인형들에게 말을 하고 듣는 이가 경청하면 말하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형들을 통해 경청의 중요성을 알게 된 만큼 남들 이야기를 경청해 인형들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인형을 통해 깨달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이미지는 언니와 글쓴이가 모은 인형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인

형을 나타내는 건지 방 내부를 보여주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미지의 다의성이 짙다. 표류하고 있는 다의성을 정박하고 있는 것은 텍스트다.

비록 생명이 없는 인형들이라도 자신이 말을 하면 경청한다는 느낌을 받아 친구들 말도 경청해야겠다는 메시지를 텍스트는 전한다. 텍스트가 이미지의 고정되지 않은 연쇄를 사전에 선택한 의미로 원격 조정하듯 의미를 지정하고 있다. 텍스트의 전형적인 이미지 정박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정박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은 주관적이지만 이미지는 보편적이다. 오히려 이미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교육시간에 이 이미지를 '경청의 중요성'으로 수용한 친구들은 없었다. 오히려 '청소가 안 된 방', '인형들' 등으로 처음엔 해석됐다. 발표자의 텍스트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메시지가 전달됐을 만큼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려움을 겪은 작품 사례다. 추상적 주관성을 표상하기 위한 이미지의 창출은 이미지 읽기와 쓰기에 대한 매우 특수한 계획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표현수단이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수용자로 하여금 해석해내게 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의 교육도 필요하다.

LTP는 청소년들에게 이미지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창의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북돋워 주고 있다. 하지만 이미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이미지의 텍스트에 대한 종속과 같은 작품도 나온다.

LTP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텍스트를 먼저 써 놓고 이미지를 찾거나 창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는 정박이 되기 쉽다. 이런 경우 이미지는 텍스트에 종속되며 자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상실한 채 탄생된다. 영상교육에서 이미지에 대한 창의성을 강조해야 한다면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이미지부터 먼저 결정하고 이를 창작한 후에 텍스트를 쓰는 것이 권장할 수 있는 순서라고 볼 수 있다.

1.2 중계(中繼 : Rela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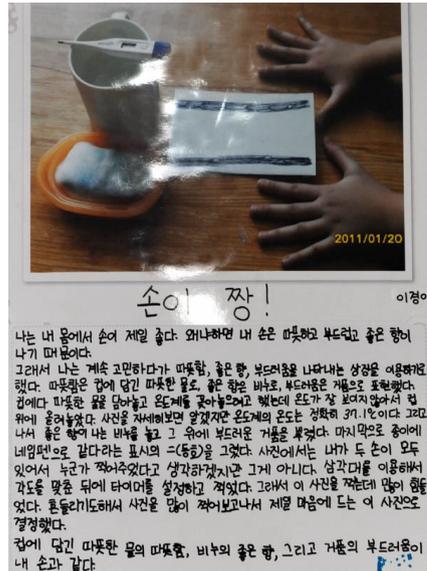


사진 3. 손이 짱

나는 내 몸에서 손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내 손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은 향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고민하다가 따뜻함, 좋은 향,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상징을 이용하기로 했다.

따뜻함은 컵에 담긴 따뜻한 물로, 좋은 향은 비누로, 부드러움은 거품으로 표현했다. 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놓고 온도계를 꽂아놓으려고 했는데 온다가 잘 보이지 않아서 컵위에 올려놓았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온도계의 온도는 정확히 37.1도다, 그리고 좋은 향이 나는 비누를 놓고 그 위에 부드러운 거품을 뿌렸다. 마지막으로 종이에 네임펜으로 '같다'라는 =(등호)를 그렸다.

사진에서는 내가 두 손이 모두 있어서 누군가 찍어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삼각대를 이용해서 각도를 맞춘 뒤 타이머를 설정하고 찍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는데 많이 힘들었다. 컵에 담긴 따뜻한 물의 따뜻함, 비누의 좋은 향 그리고 거품의 부드러움이 내손과 같다.

상징은 은유의 일종이다. 위 작품은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 상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손에 대한 따뜻함, 향기 남, 부드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상징물을 통해 은유한다. 온수, 향비누, 거품 등이 그것들인데 이는 인위적이며 상징적인 관계설정이다.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글과 같은 묘사를 한다. 온수를 표현하기 위해 온도계를 동원했고 비누에 거품을 풀어 이미지를 창출했다. 문제는 이런 상징물을 자신의 손과 은유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텍스트가 상징을 통해 자신의 손을 은유한 것처럼 이 때 이미지가 이용한 은유의 방법은 바로 등호의 인위적 등장이다. 이미지에서 추상적이었던 상징이라는 은유의 개념은 등호를 통해 시각화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서로 중계한다. 상호적으로 보완하며 커뮤니케이션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LTP를 포함한 영상교육에서의 성과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텍스트와의 관계는 상호적으로 중계 단계에서 시작되도록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1.3 삽화(插畵 : Illustration)



사진 4. 나의 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몸 중에 하나는 손이다. 손은 내가 무엇을 만질 때나 느낄 때나 감각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제일 좋다. 하지만 내손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손의 실루엣으로 나의 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Best Part of Me'라는 제목으로 과주의 한

중학교 2학년 여자학생의 작품이다. 텍스트는 서술, 논거, 부연 등의 순서로 아주 간단하게 글쓴이의 마음이 표현됐다. 그래서인지 텍스트만으로는 글쓴이가 왜 자신의 손을 사랑하는 지가 확연하게 서술돼 있지 않고 불분명하게 '만질 때 감각이 좋다' 정도로만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길지 않고 간단한 텍스트에 비해 이미지는 상당히 세세하고 아름답게 지은이의 마음이 표현돼있다. 특히 실루엣을 이용한 이미지 창작은 이 경우가 '삽화'에 해당되는 이유를 뚜렷이 설명해준다.

텍스트가 못 다한 메시지를 이미지가 충족시켜주고 있는 삽화의 기능이 현저히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이미지는 강력하고 정확하며 창의적이다. 텍스트의 한계를 이미지가 담당하며 메시지를 주체적으로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진 5. 거꾸로 떨어지는 악몽

3일이 지나면 또 LTP 수업이다. 내가 요즘 꿈 속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꿈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 진짜로 떨어질 수도 없고,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진기를 거꾸로 해서 찍을까?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실험해 보고, 된다면 점프한 다음에 거꾸로 찍으면 될 것이다. 아니면 나무 인형을 창문에 붙이고 찍으면 될 것도 같다. 나는 제발 실험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꿈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과제는 청소년들에게 상상의 세계를 시각화하는 작업이다. 상상은 자체적으로 시

각적일 수 있지만 텍스트에 기반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꿈은 비현실적이며 현실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공포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텍스트로 구현할 수 없는 세계를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삽화의 경우에 해당된다.

위 [사진 5]는 초교 3학년 남학생이 자기가 꾸 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본 것이다. 이런 작업은 의외의 결과물을 낳기도 한다. 현실에 대한 불안이나 뚜렷하지 않은 공포의 꿈을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형상화시켰을 때 간혹 그 두려움은 극복되는 효과가 있다.

어머니에 의하면 같이 사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한 달 전부터 이 청소년은 자기가 추락하는 악몽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위 이미지를 표출한 뒤부터는 더 이상 같은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지은이는 자신이 아파트에서 떨어진다는 꿈에 나타난 불안과 공포를 소재로 선택하고 탁월하게 표현해 냈다. 자신의 마음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악몽의 기억을 이미지화하고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지은이는 “LTP 수업에 찍은 사진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라고 말했다[12].

이와 같은 삽화의 경우에서 청소년들의 창의성은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대한 사고력에서 보다 더 발휘됨을 볼 수 있다. 기타 많은 청소년들의 LTP 작품들에서도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이미지는 언어의 영역에 아주 근접해있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듯 풀어놓는다. 어른들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에 비하면 청소년들의 언어는 구체적이고 시각인 경향이 강하다.



사진 6. 나의 속눈썹



사진 7. 내 눈

속눈썹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길어서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속눈썹이 길다고 한다. 그럴 때 기분이 좋다.

내 몸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다. 친구들에게도 눈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몸 중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다.

위의 [사진 6]과 [사진 7]도 이미지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는 삽화의 경우다. 각각 속눈썹이 길고 눈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를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굳이 텍스트가 없어도 이미지 자체가 지은이의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고사성어를 빌어 설명한다면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에서 ‘백문’은 ‘텍스트’에, ‘일견’은 ‘이미지’에 각각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시각적 표현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표본이 될 수 있는 다른 작품을 제시해주며 이미지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한다면 이는 LTP에서 지양해야 되는 교육방법이다. LTP교육에서 청소년은 ‘이미지에 대한 상상력’을 무한히 펼치도록 교육자는 지원해야한다. 이런 지원은 위 작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지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극대화시킨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

이들 작품과 유사하게 교육에 참가한 광주의 한 여학생은 “슬픈 시를 영상으로 표현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치유의 시간이 됐다”고 했다. 그 청소년은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했지만 LTP가 진행됨에 따라 차차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밝은 모습으로 변하는 걸 지켜볼 수 있었다. 이는 삽화의 경우에서와 같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의 전이가 마음의 정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치유의 효과까지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있어 삽화와 같은 교육적 지향은 앞선 정막과 중계의 일반적인 교육효과보다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본연의 가치를 준다.

2. 설문조사 결과분석

‘LTP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의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변화와 교육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점수를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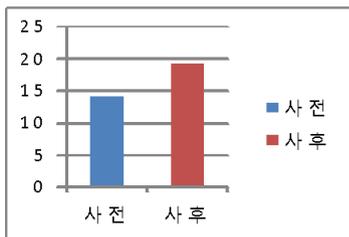
표 3. 청소년의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효과 사전사후 변화측정검사

구분	M	SD	t
사전	14.08	3.02	9.605*
사후	19.28	3.82	

* $p < .001$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과 호감도 사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평균(M) 14.08, 표준편차(SD) 3.02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평균(M) 19.28, 표준편차(SD) 3.82로서 'LTP 캠프'를 실시한 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변화가 점수가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9.605, p<.001$). 따라서 'LTP 캠프'를 실시하는 것은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과 호감도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효과 사전사후 검사비교



이상의 양적 조사는 LTP가 이미지와 텍스트의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기능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미디어 교육임을 알려준다. 여기서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란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폭력적 이미지에 반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산한 이미지가 가지는 순수한 기능뿐만 아니라 이미지 본연이 할 수 있는 풍성한 표현과 수용의 관점에서의 기능을 말한다.

또한 조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통해 이미지가 구체적 내용과 함축된 의미를 가진 표현물이며 텍스트와의 차이를 초월해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임을 알게 해준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이미지

는 단순한 메시지의 영역을 벗어나 우리의 의식과 심미적 능력까지 변화시킬 수 있으며 현실의 충실한 반영으로서 가장 직접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지는 새롭게 각광받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일 수 있다.

3. 질적조사 결과분석

질적 조사를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교사들은 청소년들과 월 1회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답변과 반응을 교육일지에 기록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세 가지 문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사례가 나왔다.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와 관련해서 파주교육을 담당한 김00 선생님은 "청소년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통합적 영상 활동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표현력'에 대해서 광명 청소년들의 경우 LTP 교육 이후 창의성 넘치는 상상력으로 이미지를 풍부하게 이용한 글짓기와 동화구연으로 교내외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수업참여 청소년들 중 한명은 일등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자기표현과 공동체 이해' 향상에 대해서는 광주 교육을 맡은 민00 선생님은 "협동을 통한 공동작업을 위해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였고 그 결과 사교의 범위와 함께 사교의 폭도 넓힐 수 있었으며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알게 됐다"고 했다.

파주의 중학교 1학년 이00군은 LTP 실시 후 인터뷰에서 "다른 이들과 협력 속에서 나의 생각이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겼다. 협동심에 대해 소중함을 갖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 및 이메일에서도 매우 다양하고 유익한 제안을 얻을 수 있었다.

고교 영상교사 A씨는 "영상을 만들면서 청소년들은 협동과 이를 통한 공동체 이해를 배웁니다. 영상교육이 커뮤니케이션 교육으로써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며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효과에 대해 말했다.

또 다른 영상교사 B씨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영상과 접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표현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보였다.

정책적 제안으로서는 “영상언어와 문자언어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역량을 지닌 교수자가 부재입니다. 상호간 이해와 통섭이 이뤄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라는 미디어 전문가 C씨의 제안이 돋보였다[13].

IV. 결론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LTP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두 구성요소로 이뤄진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보적 통합관계는 별도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밀접한 상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매체간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다[14].

다만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추구하는 LTP 프로그램의 교육결과물을 분석해 본 결과, 메시지는 이미지와 텍스트간의 결합의 형태에 따라 정박과 중계 그리고 삽화의 기능이 이미지와 텍스트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정박보다는 삽화에서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교육적 효과가 탁월했음을 청소년들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삽화와 같은 이미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이미지 표현력과 공동체 이해를 함양시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교육의 성과가 수치화되기도 했다. 조사는 LTP와 같은 시각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표현력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청소년들과 교사,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들이 실제로 겪은 이미지의 삽화적 표현이 정신적 치유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질적인 측면의 성과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LTP 교육결과물 분석과 양적, 질적 조사에서 이미지는 새롭게 각광받는 창의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므로 다른 교육보다 이미지의 기능과 활용에

방점을 둔 LTP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측면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서 ‘방과 후 교실’이나 ‘토요문화학교’같은 학교 정규교육에 LTP 교육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적 방법론이 될 것이다. 또한 국어작문이나 미술교과에도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텍스트와 통합교육을 시도해 새로운 교육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영화와 방송과 같은 영상관련 직업과 연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도 유용할 것이다. 실제로 LTP는 위와 같은 교육현장으로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방안을 통한 텍스트에 정박되지 않는 독자적 영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최종적으로는 창의적 영상교육이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실 이론적 연구는 실질적 경험에서 축적된 자료가 바탕으로 확보되었을 때 합리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사실 본 연구는 더 많은 자료와 통계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영상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이미지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 조명함으로써 창의성을 위한 영상교육 연구의 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 문헌

- [1] 최성복, *산업안전대사전*, 골드기술사, 2004.
- [2] M. McLuhan, 박정규 역,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p.369, 2005.
- [3] 조지 미드, 나은영 역, *정신·자아·사회-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 한길사, p.460, 2005.
- [4] R. Barthes, 김인식 역, *이미지와 글쓰기*, 세계사, pp.27-29, 1993.
- [5] R. Barthes, *Rhetoric of the image(이미지의 수사학)*, p.93, pp.150-160, 1964.
- [6] 최용호, “언어와 이미지: 두 매체 사이의 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16권, pp.432-433, 2005.

- [7] R. Barthes, 조광희, 한정식 역, *카메라 루시다*, 열화당, p.72, 1998.
- [8] G. Jeong, "Correlation Study between Imagery and Language through Semiotic Analysis," *TechArt*, Vol.2, No.2, pp.6-11, 2015.
- [9] 이경화, *이미지텍스트로서의 회화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p.21, 2003.
- [10] K. Hyde, *Literacy Through Photography*, *Context* 9, DukeUniv., p.56, 2010.
- [11] 이미선, *Visual Literacy 향상을 위한 초등미술과 LTP 활용방안 연구*, 경인교대, 석사논문, pp.30-40, 2011.
- [12] 정경열, *사진교육PIE*, 웅진리빙하우스, p.186, 2009.
- [13] 정경열, *영상미디어의 교육적 활용방안과 정책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pp.78-81, 2016.
- [14] 안혁, "리터러시를 위한 이미지와 내러티브 관계 분석," *언어와 언어학*, 제63집, p.130, 2014.

저 자 소 개

정 경 열(Gyoung-Youl Jeong)

정회원



- 2006년 : 듀크대 다큐멘터리 연구소 영상학 수료
- 2016년 8월 : 중앙대학교첨단영상대학원(영상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영산대학교 방송콘텐츠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디지털미디어, 크로스미디어, TV방송, 다큐멘터리, 저널리즘, 미디어교육, 보도사진